

오그먼트드 스케일을 작곡과 즉흥연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작품 "Wilderness"를 중심으로 -

김성배*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vianmusic@chungwoon.ac.kr

The Application of Augmented Scale to Improvisation

- In the Tune "Wilderness" -

Sungbae Kim*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약

Augmented Scale은 모던한 사운드의 스케일로서 현대 재즈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 비안(Vian)의 작품 "Wilderness"에서 이 스케일을 멜로디와 화성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본다. 무엇보다도 이 곡의 솔로 형식(solo form)에서 즉흥연주(improvisation)를 위한 재즈 라인(jazz line)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연구한다.

1. 서론

1.1. 역사 속의 오그먼트드 스케일

재즈 발전의 역사 속에서 현대 음악이 준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진취적인 성향의 재즈 뮤지션들은 현대 음악을 자신의 작품과 즉흥연주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 했고 -특히 화성적인 면에서-, 클래식 진영의 현대 음악 작곡가들은 재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소위 '현대 재즈(Modern Jazz)'는 비밥 전통의 계승을 뛰어넘어 현대 음악으로부터 화성적인 확장을 모색했던 재즈의 흐름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두 다른 진영의 음악이 주고 받았던 상호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오그먼트드 스케일(Augmented Scale)은 20세기 현대음악 작곡가인 벨라 바톡(Béla Bartók), 밀턴 배비트(Milton Babbitt),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등에 의해서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스케일은 모던한 사운드의 스케일로서 현대 재즈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재즈 역사에서는 이 스케일을 사용한 음악으로 "Stolen Moments"라는 곡에서의 올리버 넬슨

(Oliver Nelson)¹⁾의 연주가 유명하게 거론되곤 한다. 그가 대학에서 클래식 작곡과 이론을 전공한 배경을 추적해 보면 그가 현대음악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이를 재즈에 도입하려 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 외에 색소포니스트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 색소포니스트 마이클 브레커(Michael Brecker), 트럼펫 연주자 프레디 허버드(Freddie Hubbard), 피아니스트 리치 바이라크(Richie Beirach)등을 비롯한 수많은 현대 재즈 뮤지션들의 연주에서도 오그먼트드 스케일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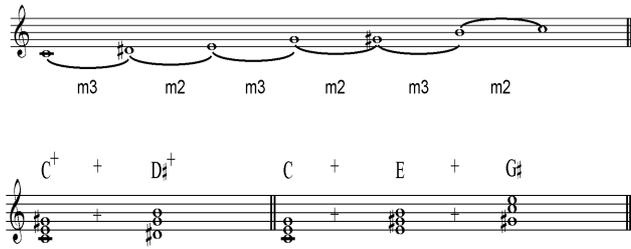
1.2. 오그먼트드 스케일이란

그렇다면 이 오그먼트드 스케일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오그먼트드 스케일은 헥사토닉 스케일(Hexatonic Scale)²⁾ 중의 하나로, 단3도와 단2도의 규칙적인 음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스케일이다. 예를 들어 C 오그먼트드 스케일은 C, Eb, E,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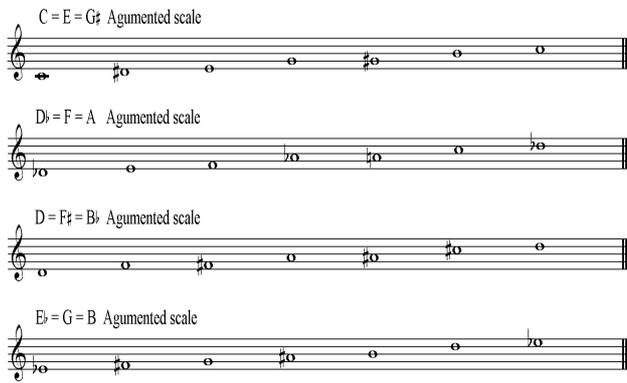
1) 올리버 넬슨(Oliver Nelson, 1932~1975): 미국 출신의 색소포니스트, 클라리넷 연주자, 작.편곡가
2) 헥사토닉 스케일(Hexatonic scale): 한 옥타브에 6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스케일. Whole tone scale, augmented scale, prometheus scale, blues scale 등이 그 예이다.

Ab, B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C+, D#+ 두 개의 오그먼트드 삼화음(Augmented Triad)의 조합으로 볼 수도 있고, C, E, Ab의 세 개의 장삼화음(Major Triad)의 합쳐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그림-1] 참조)

또한 오그먼트드 스케일은 장3도 간격의 다른 오그먼트드 스케일과 구성음이 같다. 그러므로 [그림-2]와 같이 총4개의 다른 오그먼트드 스케일이 존재한다.



[그림-1] C 오그먼트드 스케일과 스케일 안의 triad들



[그림-2] 4개의 오그먼트드 스케일

재즈에서 오그먼트드 스케일이 사용된 몇 가지 예를 아래 들어보았다.



[그림-3] 존 콜트레인 'One Down, One Up'



[그림-4] 마이클 브레커 'Not Ethiopia'

[그림-3]은 C+삼화음과 부분적인 Db+삼화음의 조합(combination)인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C 오그먼트드 스케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림-4]는 마이클 브레커의 솔로인데 정확하게 하행 B 오그먼트드 스케일을 흥미로운 리듬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본론

작곡가가 작곡에 임할 때 특정한 음악적인 컨셉을 이용하여 곡을 쓰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작곡가 비안(Vian)은 "Wilderness"(광야)라는 곡에서 오그먼트드 스케일을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논문의 본론으로, 오그먼트드 스케일을 어떻게 이 곡의 멜로디와 화성에 적용했는지 제시하고, 이 곡의 화성진행에서 즉흥연주(improvisation)를 위한 재즈 라인(jazz line)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림-5] "Wilderness"의 후렴 멜로디 중에서

2.1. 멜로디



[그림-6] "Wilderness" 중에서

[그림-5]는 "Wilderness"의 후렴 첫 8마디이다. 이를 보면 Db(혹은 F, A) 오그먼트드 스케일이 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6]의 멜로디는 D(혹은 F#, Bb) 오그먼트드 스케일이 상행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음(Bb, D, F)은 이 스케일에서 발견되는 Bb 장삼화음(major triad)이다.

2.2. 화성

"Wilderness"에서 오그먼트드 스케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된 부분은 후렴 18마디이다. 위의 [그림-5]에서 볼 수 있듯이 후렴에서는 +Maj7코드와 그

코드의 근음으로부터 5도 위의 음을 베이스로 하는 슬래시 코드(slash chord)를 사용하였고, 같은 종류의 코드가 반복되고 있다. [그림-7]은 "Wilderness"의 첫 4마디의 코드 진행과 그 보이싱(voicing)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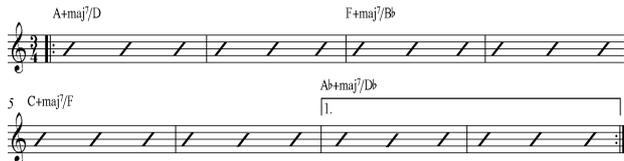


[그림-7] "Wilderness"의 후렴 부분의 보이싱

2.3. 즉흥연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곡의 솔로 형식(solo form)에서 어떻게 즉흥 연주를 할 것인지 여러 다른 접근을 살펴보겠다. 다양한 접근을 사용함을 통해 즉흥연주의 내용(content)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곡의 솔로 형식은 화성 리듬(harmonic rhythm)이 확장된 것을 제외하고는 곡의 화성 진행(chord progression)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림-8]은 [그림-5]부분의 화성 진행에서 가져온 부분이다. 즉, [그림-5]의 처음 4마디는 솔로 형식에서 8마디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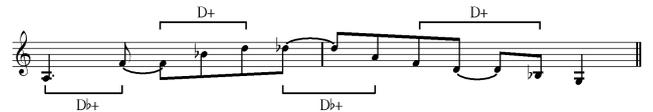


[그림-8] "Wilderness"의 솔로 형식 중에서

앞서 보았듯, 헤드(head)의 후렴에서는 위의 코드 진행 위에 Db(혹은 F, A) 오그먼트드 스케일을 멜로디로 차용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착안하여 즉흥연주를 할 때에도 Db 오그먼트드 스케일을 사용하여 라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스케일을 숙지했다는 전제만 있다면 가장 간단한 접근이다.

[그림-8]에서 보여지는 코드는 4개이지만, 모두에서 Db 오그먼트드 스케일을 사용하여 즉흥연주를 할 수 있고, 이는 즉흥 연주자(improviser)로 하여금 코드에 얽매이지 않은 보다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연주를 가능케 한다. 이를테면 D-7 - G7 - Cmaj7의 화성 진행에서 즉흥연주를 할 때 모든 코드에서 C 장음계로 연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두 번째 접근은 코드의 조합을 이용한 접근이다. Db 오그먼트드 스케일은 Db+, D+ 두 개의 오그먼트드 삼화음의 조합, 혹은 Db, F, A 세 개의 메이저 삼화음의 조합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개념에서 착안하여 아래 [그림-9], [그림-10]에서 재즈 라인을 구성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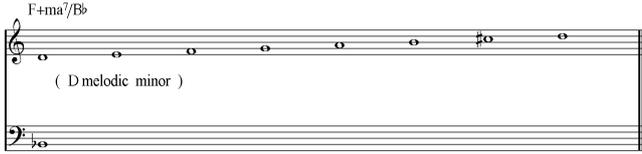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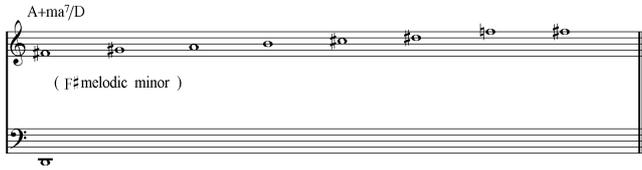
[그림-9] Db+와 D+의 조합을 이용한 재즈 라인

두 삼화음을 조합할 때 각 삼화음으로부터 적어도 두 음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9]의 첫 번째 라인처럼 삼화음이 바뀔 때 반음(half-step)으로 보이시 리딩(voice leading)함으로써 부드럽게 연결시킬 수 있고, 두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보이시 리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10]은 똑같은 방법으로 장삼화음의 조합으로 재즈 라인이다.



[그림-10] Db, F, A의 조합을 이용한 재즈 라인

세 번째로 코드 기호(chord symbol)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maj7/D의 경우 A 오그먼트드 장음계(augmented major mode)를 사용하는 것이다. A 오그먼트드 장음계는 재즈에서 말하는 F# 가락 단음계(F melodic minor)와 동일하므로 D음을 베이스로 하여 F# 가락단음계로 생각하면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F+maj7/Bb의 경우 D 가락 단음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11]을 연주해 보면 그 사운드의 어울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1] "Wilderness"의 화성 진행에 따른 가락 단음계의 적용

반음계적 접근(chromatic approach)에 기반한 재즈 라인을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그림-8]의 진행 위에서 Db 오그먼트드 스케일이 아닌 반음 위인 D 오그먼트드 스케일, 혹은 반음 아래인 C 오그먼트드 스케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왼손의 보이싱을 열린(open) 형태로 연주하면 음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림-12] 오그먼트드 스케일의 반음계적 접근

3. 결론

각 선법이 지니고 있는 저마다의 소리(sound)가 있다. 즉흥연주자로서 선법을 익힐 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소리에 대한 이해라고 할 것이다. "Wilderness"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 오그먼트드 스케일과 화성은 이 곡의 다소 어둡고 미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선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작곡과 즉흥연주에 도입할 수 있다면, 좀 더 풍성한 이야기꾼(story-teller)으로서 듣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 가지 감흥(impression)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선법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 있는 적용, 이것은 현대 재즈 뮤지션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오그먼트스 스케일과 화성은 현대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재즈 연주자들에 의해서는 거의 연주되지 않는 실정이다. 본문

에서 살펴본 접근 방식들로 많은 재즈 라인을 만드는 것은, 아직은 낯선 오그먼트드 스케일을 이용한 즉흥연주를 습득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네 가지 접근은 한 즉흥연주 안에서 더 나아가 한 프레이즈 안에서도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Walt Weiskopf & Ramon Ricker, 1993 "The Augmented Scale in Jazz", Jamey Aebersold Jazz, Inc
- [2] Jerry Bergonzi, 2006 "Hexatonics", Advance Music
- [3] Nicholas Slonimsky, 2000 "Thesaurus of Scales and Melodic Patterns", Schirmer Trade Books
- [4] Ramon Ricker, 1999 "The Developing Improviser: the Melodic Minor Scale", Advance Music
- [5] Hal Crook, 1999, "Ready, Aim, Improvise!", Advance Music
- [6] Gil Goldstein, 1993, "Jazz Composer's Companion", Advance Music
- [7] Mark Levine, 1995, "The Jazz Theory Book", Sher Music Co.